

2010년 예루살렘의 날

이번 수요일은 이스라엘의 '예루살렘의 날'로서, 1967년 6월 4일 예루살렘이 해방된 것을 43 번째(히브리 월력에 따라)로 기념합니다. 예루살렘이 유대 민족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슈아께서는 **눅 21:24** 에서 예언하셨습니다 (**속 12:6** 참조).

안타깝게도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과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해방이 아닌 점령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소유하는 문제는 국제 정치 가운데 가장 논쟁의 요소가 많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. 이 문제가 갈등의 핵이 되리라는 것도 또한 **속 12:2-3** 에 예언되었습니다.

유대인, 그리스도인,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봅니다. 성경은 **창 12:1** 에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데서 증거를 시작합니다. 물론 그 장소는 예루살렘으로, 모리아 산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'제물로 바치도록' 명 받았습니다 (**창 22**).

창 12:1 에 대한 랍비 주석은 '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다'고 기록합니다.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믿습니다. 예루살렘 (또는 시온)은 성경에 800 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. 꾸란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. 무슬림들은 메카를 자신들의 '성산'으로 바라 봅니다. 동 예루살렘에 사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해 절하기 위해 자신들의 등과 발을 성전 산으로 향하게 합니다.

히브리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메시아 왕국의 종교적, 정치적 중심지로 보았습니다 (**사 2:1-4; 미 4:1-8**). 이 곳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수도였으며, 제사가 이뤄지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. 요한의 계시 가운데,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이 연합한 곳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으로 묘사됩니다 (**계 21:2, 10; 22:2**).

기독교 전통을 보면, 예루살렘의 하늘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는 반면 유대 전통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위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. 유대 문화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성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. (베군, 마혼 메이르¹):

1. - 유대 기도 책에서, 매일 드려지는 18 개 기도 항목에는 다윗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2. - 유월절 만찬(썬데르)은 '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'라는 기원으로 마칩니다.
3. - 모든 유대 결혼식에서는 잔을 깨뜨리며 "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뻔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뻔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" 라는 선포를 합니다.(**시 137:5-6**).
4. - 매일 식사 후 축복할 때 종교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.
5. - 전세계적으로 유대 회당들은 성경 귀와 기도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지어집니다.

신약 성경에서,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다뤄졌지 덜 중요한 위치는 결코 아닙니다. 예슈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어졌습니다 (**눅 1:10-11, 2:25, 2:36**). 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으셨습니다 (**눅 2:21**). 예슈아께서는 성전을 치우시고 그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(**눅 19:25, 20:1**). 예루살렘은 예슈아께서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곳입니다. 예루살렘은 그 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며, 약속대로 주께서는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(**행 1:10-11**).

예루살렘은 초대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곳입니다 (행 2:1-4). 또한 그 곳에서부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(행 1:8). 예루살렘 사도 위원회는 전세계 초대 교회의 영적 권위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(행 15:6, 22, 30).

신약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단지 2,000년 전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, 장래의 예언들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. 예루살렘으로부터 부흥이 번져나가 온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(행 2:17). 예루살렘으로부터 마지막 때의 메시아닉 운동이 시작돼, 예슈아의 재림을 바라며 “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-마 23:39”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.

예슈아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고, 메시아닉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당신의 재림의 전제 조건으로 정하신 사실을 보면 이 도시의 중요성이 다윗 왕국 이상,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이상, 초대 교회가 겪었던 일 이상임이 증명됩니다.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.

이 때문에 예루살렘은 오늘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토록 논쟁이 많은 곳인 것입니다.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드는 큰 전쟁으로 마무리 되는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(슥 14:1). 그 때 예슈아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. 그분의 발이 올리브 산에 설 것입니다 (슥 14:4). 그 분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(슥 12:2, 9, 14:3, 12).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(사 2:4, 미 4:4-6, 율 3:17-18, 슥 14:14).

예루살렘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은 실제로 그 도시 때문이 아닙니다. 예루살렘은 예슈아의 왕국의 도성, 곧 그분의 지상 권세를 상징합니다.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 권세 및 방식을 결정하실 권리가 있는가에 있습니다. "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쁨 받은 자[메시아]를 대적하며" - 시 2:2

하나님께서서는 한 사람(예슈아)과 한 장소(예루살렘)를 택하셨습니다. 둘, 혹은 둘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. 예슈아의 주 되심과 예루살렘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세와 인류의 반역이 충돌하는 핵심입니다. "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" - 시 2:6
누구를 통해, 그리고 어떻게 통치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(시 132:13, 17).

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더불어 ‘예루살렘의 날’에 동참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"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" - 시 122:6